

▶ 달러/원 주간 전망

• 美 CPI 파장, 단기 분기점 될 듯

서울, 2월1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 지표 결과에 따른 글로벌 시장 반응 따라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40-1,280원이다.

연초 원화 강세를 견인했던 대외 재료 영향력이 소진되면서 2월 들어 원화는 그간 강세 흐름을 되돌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전환 기대가 강력한 고용 지표 여파에 흔들리면서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는 방향을 선회했고, 원화도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채 선물 매도와 원화 약세가 함께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 채권 자금과 관련한 리얼머니가 원화 약세를 이끌었다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연초 수준인 1,260원대로 빨리 복귀해 시장 심리가 애매해진 상황에서 이번 주 나올 미국 물가 지표 결과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상승률은 6.2%로 작년 12월 6.5%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전월비 상승률은 작년 12월의 0.1% 하락에서 0.4%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상승률 둔화 경로는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 둔화 속도를 둘러싼 시장의 해석과 전망에 국내외 금융시장은 변동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연준 정책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해 시장을 들뜨게 했는데, 이번 물가 지표에서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금주도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시장 반응도 살펴야겠다.

달러와 금리 향방 따라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원 단기 박스권 상단 확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외국인 동향과 관련 수급이 원화 방향성과 변동성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환율의 추가 상승 시도가 진행될 경우 역내 수급 주체들의 대응도 관건이다.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 이외에는 미국 1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및 생산자물가 지수 등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2월13일(월)

- ⊙ 관세청: 2.1~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본회의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 경제 설명회,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등 (12~14일, 미국 뉴욕)

2월14일(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회 본회의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1:00)
- ⊙ 한국은행: 2022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금융위원회: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14:00)
- ⊙ 기획재정부: 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등 (14~17일, 미국 워싱턴 D.C.)

2월15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통계청: 2023년 1월 고용 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월 고용 동향 분석 (09:00)
- ⊙ 기획재정부: 한국 경제 설명회 및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결과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2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6:00)
- ⊙ 금융감독원: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배포시)
- ⊙ 기획재정부: 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등 (14~17일, 미국 워싱턴 D.C.)

2월16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차관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10: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 동향(2월호) 발간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 (11:00)
- ⊙ 한국은행: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산업 모니터링: 증권사 리포트 텍스트 분석 (BOK이슈노트 2023-5) (12:00)
- ⊙ 기획재정부: 2차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 (14:30)
- ⊙ 기획재정부: 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등 (14~17일, 미국 워싱턴 D.C.)

2월17일(금)

- ⊙ 기획재정부: 2023년 2월 최근 경제 동향 (10:00)
- ⊙ 금융위원회: 「ESG 금융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10:00)
- ⊙ 금융감독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15:00)
- ⊙ 기획재정부: 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등 (14~17일, 미국 워싱턴 D.C.)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2월 13-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1월		6.30%
2월 14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4분기	2.0%	-0.8%
2월 14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12월		-0.1%
2월 14일	19: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4분기		
2월 14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월		89.80
2월 14일	22:30	미국	CPI MM, SA	1월	0.5%	-0.1%
2월 15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YY	12월	-0.6%	2.0%
2월 15일	21: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월 10일 주간		249.5
2월 15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월		-32.90
2월 15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월	0.9%	-1.1%
2월 15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월	0.4%	-0.7%
2월 16일	00:00	미국	기업재고 MM	12월		0.4%
2월 16일	00:00	미국	소매재고	12월		0.3%
2월 16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2월		35
2월 16일	08:50	일본	가계류주문 MM	12월		-8.3%
2월 16일	08:50	일본	수출 YY	1월		11.5%
2월 16일	08:50	일본	수입 YY	1월		20.6%
2월 16일	08:50	일본	무역수지	1월		-1,448.5B
2월 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월		-1.5%
2월 16일	22:30	미국	건축허가	1월		1.337M
2월 16일	22:30	미국	주택착공	1월	1.299M	1.382M
2월 16일	22:30	미국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 6일 주간		196k
2월 16일	22: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월		-8.9
2월 16일	22:30	미국	PPI 최종수요 YY	1월		6.2%
2월 17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12월		13.41B
2월 17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월		0.4%
2월 17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월		-2.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13일(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로그룹 회의 참석
- ⊙ 미셸 보우만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은행인협회 컨퍼런스 연설 (오후 10시)

2월14일(화)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프레리 뷰 A&M 대학교 주최 행사 참석 (15일 오전 1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라살대학교 2023 경제전망 행사 연설 (15일 오전 3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은행인협회 주최 회의서 연설 (15일 오전 4시5분)

2월15일(수)

- ⊙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 상원 경제입법위원회 출석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 연례 보고서 관련 유럽 의회 전체토론 참석 (오후 11시)

2월16일(목)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GIC '우크라이나 사태 1년 후' 행사 연설 (오후 10시45분)
- ⊙ 뉴욕 연방은행, 작년 4분기 가계부채·신용 보고서 발행 (17일 오전 1시)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 잭슨 카운티 상공회의소 오찬서 발표 (17일 오전 3시30분)
- ⊙ 리사 쿡 연준 이사, 사디 콜렉티브 리서치 리셉션 연설 (17일 오전 6시)
- ⊙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 하원 경제위원회 출석 (17일 오전 7시30분)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국제금융경영인협회 북동부 오하이오 지부서 연설 (17일 오전 8시)

2월17일(금)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로슬린 BID에서 노동시장 관련 연설 (오후 10시30분)
- ⊙ 미셸 보우만 연방준비제도 이사, 테네시은행인협회 컨퍼런스 참석 (오후 10시45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전 세계 시선 집중된 미국 1월 CPI

오는 14일 발표될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지표다.

그동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최근 3개월 연속 전망치를 하회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미국의 1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작년 12월의 6.5%보다 둔화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1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상승세로 전환했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12월 전월비 0.1% 하락했던 CPI는 1월에는 0.4%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후반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차기 일본은행 총재

일본 정부가 곧 일본은행(BOJ) 차기 총재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지난 10일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BOJ 통화정책위원 출신의 경제학자 우에다 가즈오를 차기 총재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미야 부총재는 총재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차기 총재에 따라 BOJ의 초완화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 美·中 갈등과 위안화 항배

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확인·격추한 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위안 움직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억제조치 해제로 올해 초 중국 증시와 역외 위안 가치는 강세를 보여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상무부는 10일 정찰 풍선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국의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시장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위안 타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 영국 1월 인플레이션과 소매판매

오는 15일 발표될 영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2%로 전달의 10.5%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17일 나올 1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12월에는 5.8% 감소했었다.

⊙ 튀르키예 대선 앞두고 대통령 재난 대응 주목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리스찬 코프 유니온인베스트먼트 채권팀장은 "지진이 강력한 와일드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은 에르도안 정부의 재난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 정부의 지진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론 속에 2002년 조기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후 장기 집권 중이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외환제도 개편 ①)-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증권사 환전·증권금융 FX스왑시장 참여 허용**

서울, 2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사의 외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외환법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 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 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외환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 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거래 절차 및 외환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 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면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외환법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주요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로 확대**

정부는 해외송금 시 증빙 없는 송금 한도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외화 차입 시 기재부와 한은 신고 기준을 기존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상향했다.

▲ **대형 증권사 외환 업무 확대..증권금융 스왑시장 참여 허용**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 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대형 증권사만 기업 대 상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규정 개정으로 외환 전산망 구축 및 전문인력을 확충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현재 9개)의 경우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을 스왑시장 참여 기관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FX스왑 시장 참여 기관은 기재부, 한은, 은행, 일부 증권 및 보험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제도 개편 ②)-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대한 대외건전성 상황별 단계적 조치 도입**

서울, 2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정부는 대외건전성 악화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본거래 방식 등을 협의 또는 권고하는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에서 최근 위기를 계기로 기관투자자, 즉,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펀드), 국민연금 등 법률상 기금, 체신관서 등의 해외투자자와 환 노출 확대가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협의절차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작년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40원대로 급등한 배경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에 의한 수급 쏠림이 지목된 바 있다.

현재는 법규에 명시된 자본통제 등의 규정을 근거로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만 별도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다.

외국환거래법 20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본통제의 명령 단계 이전 대외건전성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협의, 권고, 명령 등 단계별 시정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위기가 우려될 때 자본거래 시 정부는 기관투자자와 외화 조달 방식을 협의 또는 권고할 수 있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본거래 시에는 허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거나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건전성에 대한 정책 틀을 조금 더 명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시장 제도개선 ①)-인가 외국 금융기관 현물화·FX스왑 거래까지 허용... 당국 모니터링 체제 유지

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외환 당국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관 확대, 개장 시간 연장, 대고객 외국환 전자증개 업무 도입을 비롯해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 등을 포함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 당국은 현재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시장 구조 때문에 역외 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수급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시장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면서도 대외 안정성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래 참가자·허용 범위 확대

당국은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 등을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환 전문투자회사 또는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기관은 직접 시장 참여자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RFI는 국내 금융기관처럼 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현물환 거래뿐만 아니라 FX스왑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RFI 관련 제도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래 시간은 당초 발표한 대로 한국시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거래 시간 확대에 따른 매매기준을 산정은 지금처럼 9시에서 15시30분 기준으로 산출하고,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 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할 계획이다.

▲ 당국 모니터링 체제 유지

당국은 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기존 거래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FI의 은행 간 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현물환 2개, FX스왑 9개)를 통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당국은 기존처럼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RFI가 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RFI 간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사실상 역외 원화 시장이 개설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는 거래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화 거래 접근성 제고에도 다른 통화와 달리 당국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 기존 NDF 거래를 역내 거래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시장 내에선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 외환 당국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NDF 규제가 강화되는 여건에서 NDF 거래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면서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NDF 거래보다는 국내 외환 시장에서 DF 거래로 바꾸려는 역외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NDF 거래를 역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시장 제도개선 ②)-시범운영 거쳐 내년 7월 시행... 거시건전성 규제 보완 검토 중

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6개월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과 시행 시점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필요시 시행 시기와 구조개선의 폭과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따른 국내 기관의 규제 역차별과 시장 경쟁력 약화, 그리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RFI) 참여 확대에 인한 시장 불안 확산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거시건전성 제도 보완 방안 검토 지속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 즉, 선물환포지션 비율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한국의 대외부담 취약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 금융기관이 외환 거래에 직접 참여하게 될 환경에서 기존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 및 국내 금융기관의 규제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기존 외환 건전성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례로 국내 금융기관의 RFI를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시 RFI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 통제 수단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외환 당국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를 바꾼다고 했을 때 기존 제도를 바꿀지 또는 없는 제도를 만들지는 관계기관과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아직 최종안이 도출되어 있지는 않고,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지점 간 직거래, 원화 차입 신고 의무 면제

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하고 원화 차입 신고 의무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 시 현재 10억원까지는 신고 면제, 10억원부터 300억원까지는 은행 신고, 300억원 초과 차입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하지만 앞으로 RFI가 국내 외은 지점 또는 국내 지점이 없는 RFI가 국내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경우 이러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원화 차입 시 국내 기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시장 제도개선 ③)-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허용

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외환 당국은 선진국 수준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된 대고객 전자 중개업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국내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열린 세미나 개최사에서 "과거에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거래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역외 원화 시장이 개설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최근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거래시간, 참여자의 확대가 뒷받침될 경우 물리적 장소의 중요성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RFI)에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법령상 규율 공백이 있는 전자중개회사(Aggregator)의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를 제도화해 허용할 계획이다.

BI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거래 중 전자거래 비중은 2022년 기준 57.6%로 전자거래가 이미 보편화된 만큼 국내 외환시장도 이러한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전자거래 플랫폼은 은행 개별 전자거래 플랫폼과 다수 은행이 전자거래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해 은행별로 대고객 가격을 제공하고 주문을 체결하는 멀티 은행 플랫폼이 있는데 이들은 은행 고유한 외국환 업무로 이미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다수 은행과 연결해 은행들과 고객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는 그간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당국은 이 또한 사전 등록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이들의 은행 간 시장 참여기관 간 거래 중개는 불가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중개 회사 인가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시장 제도개선 ④)-당국자들 “모니터링 체제 유지... 규제 재정비 논의 이어갈 것”

서울, 2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외환 당국자들은 7일 역외 기관들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당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외환 당국은 이날 국내 외환시장 참여 기관 확대, 개장 시간 연장, 전자거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환 당국은 폐쇄적이고 제한된 현재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인가된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투기 목적의 기관은 RFI로 허

용하지 않는 데다 RFI의 거래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당국은 기존의 거래 모니터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 재정비 논의 필요

당국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접근성 제고와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꾀하는 이번 방안에 의미를 두면서도 "시장이 자유로워지고 개방되게 되면 기존의 규제들에 대한 재정비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국내) 거시건정성 정책은 글로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등 여러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어떤 것이 최선일지 다양한 각도에서 안정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체제 유지가 원화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최 국장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투기적 공격에 대한 안정성 이슈다. 우리가 충분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완전한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 두 가지의 균형이 문제"라면서 "당국은 점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그 이후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하반기 시행 기본 방향

외환 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시행 목표를 6개월여 시범운영 이후 내년 7월로 잡았다.

다만 외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시스템이나 인력 측면에서 국내 은행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원화 거래 주도권은 국내 기관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내 금융기관 준비 상황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 국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룬다면 지금까지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적 측면이 이런 이유였을 것"이라면서 "저희가 마련한 타임라인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2.83%, 유로화 -1.09%,엔화 -0.18%, 위안화 역내 -1.02%, 달러지수 +0.57%
- 국내 주가: 코스피 -0.43%, 코스닥 +0.74%
- 미국 주가: 다우존스 -0.17%, 나스닥 -2.41%, S&P500 -1.11%, 러셀2000 -3.36%
- 국내 국고채(레퍼니티브 호가): 3년 +28.8 bps, 10년 +22.0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3.0 bps

- 미국 국채: 2년 +21.2 bps, 10년 +21.1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77.0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8.63%, 금 선물 -0.06%, 레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2.52%